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협동조합

이종원 (계명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사회적 협동조합의 배경

1. 사회적 경제
2. 사회적 자본
3. 사회적 경제운동

III.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두

1. 국외의 사회적 협동조합
2.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
3.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IV. 사회적 협동조합과 교회의 역할

1.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타주의
2. 연대성과 호혜의 공유가치창출
3.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문제 해결

V. 사회적 협동조합의 취약점과 대응방안

1. 지속가능성 문제
2. 규모의 영세성과 자금 조달의 문제
3.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자생력 확보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7.06>

• ABSTRACT •

A Study on Social Cooper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Lee, Jong-won (Keimyong University)

This research studies on the social cooperative which is the alternative economic order of neoliberalism from a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First, this study delves into the publicness and the pursuit of social value of social cooperatives based on social economy and social capital. Exploring the advantage and limits of social cooperatives, it seeks the solution of it's limits. The social cooperatives is an economical organization to preserve coexistence and the value of life. The social cooperatives is based on altruism because its purpose is to serve public interest. The social cooperatives exist to provide social services such as the care of elderly and disabled people, and the integration of unemployed people into the workforce. The value of social cooperatives is related to the value of Christianity as such that providing protection and care for the poor and weak in the society is a basic obligation of loving and just community. Therefore, social cooperatives is an effective method that realizes the economy of care, providing strength to the weak based on the spirit of reciprocity of trust. Also, it is a solution to various problems of low growth and unemployment, poverty and polarization of our society. Hence, the church must be an advance base of social cooperatives as a community of enthusiasm, commitment and altruism for the others.

Key words: Social Cooperatives, Social Economy, Social Capital, Altruism, Coexistence, Reciprocity, Solidarity

I. 들어가는 말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사회적, 비경제적 힘들에 의해 심하게 굴절되어 왔다.¹⁾ 특히 시장경제의 글로벌화는 모든 사회관계를 상품관계로 획일화시키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²⁾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시장 중심적 신자유주의가 확장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 체계를 붕괴시켜 대량실업 사태를 빚었고, 이로 인해 정부의 복지부담도 늘어나게 되었다. 고용 안정을 위협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음을 자각한 시민 단체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조조직들을 결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운동이다.

사회적 경제운동은 1970년대에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어 사회정책과 사회운동, 일상의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으로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비영리 조직(NPO)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공공영역에서 강조되던 협력과 이타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자본주의를 넘어 평등과 연대에 기초한 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한다.

1) Allen J. Scott, *Social Economy of the Metropol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64.

2) 글로벌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글로벌 경제는 여러 국가의 생산과 분배 행위에 관여하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지배된다. 둘째, 새로운 정보와 소통 기술은 생산, 무역, 아이디어와 문화적 가치의 보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간 행위 영역들에 대변혁을 일으킨다. 셋째, 지역 경제들은 합병되고 강화되는데, 이러한 합병은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자본, 그리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특징 지워진다. 넷째, 인구 이동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다섯째,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제도와 법이 정치 경제적 관계를 규정한다. 여섯째, 상호의존적인 복잡성이 나타나게 된다. Gillian Brock, *Glob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9.

국내의 사회적 경제운동은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목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격차와 고용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착한 소비와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7월 정부에 의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자, 사회적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되기에 공익적 성격이 더 강하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가치 실현에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황금률과 이웃 사랑의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상적이다. 성서는 ‘고아,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나타내며, 그들을 배려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성서는 불의를 극복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성서가 말하는 정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평등과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의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고자 했던 이상이었다.

본 소고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반하고 있는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호혜와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장점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들을 분석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사회적 협동조합의 배경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배경이 되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경제운동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1900년 전후에 활동한 프랑스의 경제사상가인 샤를 지드(Charles Gid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지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인해 유발되는 갖가지 사회적 위험을 예견하면서, 시장경제가 한층 더 사회적이고 공평한 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순수 경제학과 사회 경제학을 구분하였는데, 순수 경제학이 부의 생산과 인간과 물질,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면, 사회 경제학은 사회 조직들의 형태, 법, 관습 혹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을 둔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보았다.³⁾ 그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같이 이타적인 협력과 상호 부조의 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로 규정하였다.⁴⁾

3) 신창환, “사회적 경제의 실천 조건과 정책을 통해 본 사회적 협동조합의 과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8권 2호 (2015년 10월), 93-94.

4) 샤를 지드는 사회적 경제에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경제조직뿐 아니라 부를 사회정의에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물질적인 경제 가치에 치중하여 거래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삼는 시장경제에 반기를 들고 호혜성(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교환(exchange), 공정, 평등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돌봄의 경제를 주장하였다⁵⁾ 그는 경제를 형식적인 경제(formal economy)와 실체적인 경제(substantial economy)로 구분하였는데, 형식적인 경제가 추상적이며 논리적 차원의 경제라면, 실체적인 경제는 실제 사회에서 경제가 작동하는 사실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실제 사회에서 경제가 작동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실체적 경제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한다.⁶⁾ 그는 사회적 경제를 단순한 시장의 원리를 넘어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와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보았다.

사회적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후퇴, 사회주의권의 몰락, 신자유주의적 처방의 실패 등으로 실업과 빈곤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증폭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유럽 등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신하여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유럽의회는 2009년 사회적 경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이 결의안의 내용은 이윤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 편익에 의해 추동되는 다른 방식의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경제의 필요성(제8조)을 강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맞게 분배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신명호, “사회적경제의 이해,” 김성기 외,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홍천: 아르케, 2014), 18.

- 5) 김영진,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파주: 한울, 2005), 33. 이윤재·강달원·이화진, 『나눔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 기업』 (서울: 탐복스, 2012), 301 참고.
- 6)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홍기빈,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09), 629-630. 실체적 경제는 실제 사용을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이며, 이윤(교환)을 위한 생산과 별개의 개념이다. 실체적 경제는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작용의 제도화된 과정을 의미하며, 모든 인간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이다. 실체적 경제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 김영진,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47.

과 적극적인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노동시장 불균형의 3대 요소인 실업과 고용 불안 및 사회적 배제를 바로잡기 위해 상조회와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하는 제3섹터 전반에 대해 법 제도와 통계 장치를 적절히 갖출 것을 촉구(제20조)하고 있다.⁷⁾

2. 사회적 자본

흔히 자본을 말할 때 경제적 자본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자본에 대해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접근한다. 부르디외(P. Bourdieu)는 자본을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면서 사회적 자본이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보았다.⁸⁾ 즉,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서로 간에 결속력을 갖게 되는데, 그 결속력으로 생긴 이익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았다. 사회적 자본의 양은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크기와 그와 연결된 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콜먼(J.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과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자본으로 보면서, 이것을 가진 사람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⁹⁾ 콜먼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에 주목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특정한 실체가 아니지만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구성되며,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보았다.¹⁰⁾ 즉, 사회적 자본은 한 개인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7) 신명호, “사회적경제의 이해,” 21.

8) Pierre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유석춘 외,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서울: 그린, 2003), 75.

9) 박찬용, 『시장과 사회적 자본』(서울: 그린, 2006), 30.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의 측면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자본으로서 개인의 행동 능력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적으로 기대된다. 반면 불신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거래 비용은 증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나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는 언제든지 교환 가능하며, 이를 도덕적 자원으로서 사용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은 물질 그리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부르디외와 콜먼이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나 연결망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에 접근하였다면, 퍼트남(R. Putnam)은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자본을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퍼트남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였는데, 그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 내렸다.¹¹⁾

시민 참여의 네트워크는 협력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산시키게 된다.¹²⁾ 퍼트남은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자원 조직

10) Jame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유석춘 외,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2003), 93 참고.

11) 김기태 외,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서울: 알마, 2014), 39.

12)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집단이 증가하면 그 과정에서 집단 사이에 서로 교차하는 연대가 형성되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원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원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 유석춘,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42.

에 참여함으로써 신뢰, 절제, 합의, 호혜성과 같은 시민적 덕목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¹³⁾ 그는 더 나아가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결사체가 신뢰를 창출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기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이 다른 형태의 자본들과 구별되는 특성은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공공재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의 공공적 측면이 바로 시민적 자본이며, 그 정신의 핵심은 바로 자발적으로 서로 돕는다는 것이다.¹⁴⁾ 사회적 자본을 게임이론에 적용해 본다면, 사회적 관계는 개인들이 게임에 참여할 때 배반하지 않고 계속해서 게임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서 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감시능력, 기회행동에 대한 처벌, 협력적 행위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¹⁵⁾ 사회적 자본은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 간에 가치관, 규범, 목적의 공유를 통해 서로 간에 더욱 든든한 연대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통합효과는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실벤(N. Sirven)은 인적 자본의 사회적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을 규정하면서, 이는 집단에 속하는 행위 규범과 같은 사회적 강제력이 사회적 상승 현상(multiplier phenomenon)을 통하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를 줄이고 교환 비용을 줄인다고 보았다.¹⁶⁾ 이로 볼 때,

13) Robert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유석춘 외,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2003), 129.

14) 최문경,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가치," 강욱모·심창학 편,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 (서울: 오름, 2012), 62.

15) 박찬용, 『시장과 사회적 자본』, 43.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호혜의 관계성 속에서 창출되는 무형의 자본으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문화적 활동의 재생산 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 경제운동

사회적 경제운동은 사회적 자본에 기초하여 평등과 타인에 대한 배려, 연대와 사회적 책임, 자율과 자립,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제운동이다. 사회적 경제 전통의 중심은 약자들에게 힘을 주고 궁핍한 자들을 돕도록 명령한다.¹⁷⁾ 또한 혁신적 비즈니스를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폐해로 해체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에서 지역사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중요하며, 이는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계기가 된다. 지역의 인구 규모, 주민의 지식, 능력, 경험 등이 신뢰로 결합되고, 다양한 관계망이 복합적으로 연결됨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은 강화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주로 협동조합, 상호부조조직, 결사체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장원봉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는 복지수요의 공동생산 주체로서 서비스 소비자인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둘째, 이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유대를 통한 구체적으로 지

16) Nicolas Sirven, "Social capital: a critic and extension," J. B. Davis & W. Dolfsma, *The Elgar Companion to Social Economics* (Cheltenham : Edward Elgar, 2008), 373-374.

17) Ilene Gabel, "Global finance and development," J. B. Davis & W. Dolfsma, *The Elgar Companion to Social Economics* (Cheltenham : Edward Elgar, 2008), 496

역사회의 복지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는 국가의 재분배 영역과 시장의 시장교환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의 호혜영역으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매개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에 대한 복합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새롭게 생성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노동통합과 새로운 고용창출을 통해 낙후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1990년대부터 사회적 경제와 유사한 조직을 준비했었고, 정부가 추진했던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시민사회의 협력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최근에는 기존의 정부순응적인 조직과 차별화되는 자활공동체, 자활공제회, 사회적일자리사업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등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되고 있다.¹⁹⁾ 이들 조직들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관여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보다는 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며, 자율적인 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 자본 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위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운동은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조와 자립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보완하거나 완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나

18) 장원봉, “유럽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김성기 외,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홍천: 아르케, 2014), 232.

19) 김의영·미우라 히로키 외,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 (과천: 진인진, 2015), 112. 참여연대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2005년 희망제작소를 설립해 마을기업, 자활기업 활성화에 주목해 사업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완충제의 역할을 한다.

III.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두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노동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다 폭넓게는 지역재생 및 대안에너지 개발, 환경·문화·예술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조직과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자본을 제공하는 협동조합금융기관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1. 국외의 사회적 협동조합

서구에서는 자본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윤창출과 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여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는 대안경제로서 오랜 동안 연구되고 실험되어 왔다.²⁰⁾ 사회적 경제가 갖는 호혜성, 민주적 참여, 협동과 연대 등의 원칙과 문화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성과 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닌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는 이탈리아이며, 그 중에서도 볼로냐에서 활동하는 카디아이(CADIAI)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낸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²¹⁾ 이탈리아는 1970년대 말부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사회서비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자조조직들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1991년 이

20) 김경희,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권2호(2013년 8월), 128.

21) 이상봉,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론적·실천적 의미: 공생의 지역사회 만들기의 관점에서,” 『로컬리티 인문학』 제16호(2016년 10월), 259

탈리아 정부에 의해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활동내용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유형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요구에 대응하여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A형)이고, 둘째 유형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노동통합형(B형)인데, 전체 노동자의 30%를 취약계층으로 채워야 한다.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는 서비스제공형과 노동통합형을 절충하여 혼합한 유형(AB형)과 협동조합들의 사업연합체형(C형)이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사용하고, 공공 영역이나 민간의 자선 영역에서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제공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경제활동 조직인 협동조합을 기본 모델로 하되 영리 배분을 금지하고 공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70% 이상이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하며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욕구를 보다 적절하게 파악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는 약 13,938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건강 케어·교육·문화·여가 등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용자가 약 3백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복지부문을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측면에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²²⁾

스웨덴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국영기업인 삼할(Samhall)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제적 결사체로, 회원들의 생산 활동으로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의 경제적 이해를 충족시켜주는 조직으로 정의 내린다. 스웨덴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A형은 영리 보다는 사회적 목표를 중시하는 자원적, 결사적 조합들로 소외층의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B형은 회원들의 정원일, 수공예, 기타 여가활동을 통한 재할에 관한 활동을 한다. C형은 회원들의 노동과 고용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맞추어 수익활동을 한다.²³⁾ 스웨덴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회원들의 수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일반 협동조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슷한 비영리조직들이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미약했던 반면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비영리조직의 활동이 활발했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특징은 사업으로 획득한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²⁴⁾ 미국의 비영리조직들은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2.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

국내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층을 대상으로 다

22) 이철선, “고용복지 대안수단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능성진단,” 『보건복지포럼』 제197호 (2013년 3월), 68.

23) 주성수,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0), 102.

24) 김기섭은 영리(for-profit) 조직의 반대는 비영리(non-profit) 조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non-for-profit) 조직임을 강조한다. 영리나 비영리나, 즉 이익을 분배하느냐 분배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조직 자체의 목적이 자분을 기반으로 한 영리 추구에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냐는 것이다. 김기섭, 『깨어나라 협동조합』, 273.

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을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²⁵⁾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시설법인: 1,497개, 지원법인: 247개 (2013.9.기준)	인가 1,206개(활동 1,124개) (2014.6. 기준)	80개 (2014.8. 기준)

국내의 사회적 기업은 자활사업과 2003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²⁶⁾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월 초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1,713개로서, 서울 291개, 대전 43개, 광주 88개, 부산 97개, 경기 286개, 충남 79개, 전남 76개, 경남 78개, 제주 40개, 인천 101개, 대구 64개, 울산 57개, 세종 9개, 강원 106개, 충북 78개, 전북 108개, 경북 112개이다.²⁷⁾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 유형으로 나뉜다.

25) 조미령,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능성 탐색,” 『농촌지도와 개발』 21권 3호 (2014년), 101.

26)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 의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자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자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27)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company.do> (2017년 2월 9일 검색)

정부(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로부터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를 비롯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지원,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지원, 시설비 등의 용자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의 경영 지원이 제공된다.²⁸⁾

국내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중고 물품이나 재활용품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효시이다.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 시작되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설립 9년째인 2010년에는 연간 판매액이 220억 원에 이르렀고, 매장 또한 120개로 늘어났으며, 기증자와 구매자를 합하면 1천 만 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²⁹⁾ 아름다운 가게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약 6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선순환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정신지체 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페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악기를 만들고 소의 계층을 위해 공연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 청소 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 생산 업체인 동천모자 등이 있다.³⁰⁾ 또한 ‘행복한학교재단’은 SK 그룹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울산에서 운영되고 있다.

3.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법인에 가까운 일반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국세, 지방세,

28) 김재훈,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과주: 한울, 2013), 126.

29) 이원재,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심상달 외, 『사회적경제 전망과 가능성』 (서울: 에딧더월드, 2015), 185.

30) 김재훈,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126.

부과금 등에서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원 간의 내부적 연대와 이윤 분배, 조합원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들 간의 연대, 조합원의 경계를 넘어 지역 전체를 위한 이윤 분배, 지역 공동체 전체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다. 둘째, 5인 이상만 모여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는 일반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며, 이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의 고용을 허용하며,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가 허용된다. 그밖에 적립금, 잉여금 배당, 부과금 면제, 해산 시 재산 처리 등에서 일반 협동조합과는 차이가 있다.³¹⁾

2013년 12월 기준으로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소관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2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21개, 교육부 16개, 보건복지부 13개 순이다. 교육부에 신청 검토 중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방과후학교 위탁사업(5개)과 학생복지를 위한 친환경 매점 운영(2개), 강사·에듀컨설턴트 육성, 직업·진료교육, 농촌유학센터 방과후 돌봄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신청된 사회적협동조합 중에는 어린이집 운영(3개), 의료복지 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

31) 조미형,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능성 탐색,” 99-100 참고.

설(2개),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교육·임가공사업,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이 있다.³²⁾

대덕과학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은 과학기술 R&D와 서비스 분야에서 퇴직한 과학기술자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3월 설립되었다. 또한 2013년 12월 12일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1호점을 개원한 아름다운수학교실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실력상향평준화 달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³³⁾ 경력단절 이공계여성을 초·중등 수학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협동조합운동은 식민지 시대의 YMCA, 평양이 중심이 된 소비조합운동으로부터 해방 이후 풀무공동체, 도시산업선교회의 협동조합, 감리교의 인천상업선교회, 청주산업선교회, 예장 통합교단의 영등포산업선교회, 교단차원에서 진행된 예장생협, 농도생협 등 다양한 조직과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³⁴⁾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교회가 주도한 사업은 아직 없는 실태이다. 최근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는 협동조합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32) 같은 책, 96.

33) 김인겸 외, “사회적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대수익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제12호 (2015년 12월), 484-485.

34) 이에 대해서는 이종원, “기독교 협동조합의 가능성,” 『신학과 사회』 30집2호 (2016년 5월), 21-24. 조용훈,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33집 (2015년 12월), 358-364를 참고하십시오.

IV. 사회적 협동조합과 교회의 역할

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에 응답하는 길이다.³⁵⁾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협동의 정신이며 교회의 선교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교회 공동체가 협동의 공동체로서 가졌던 예클레시아의 통전적인 측면을 되찾으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1.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타주의

초기 협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 농민 등으로서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빈곤에 시달린 데다 교육조차 받을 기회가 없으므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은 없었던 시대였다. 하지만 이들은 단결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윤리적인 기업 경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사업의 주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이 상호 자조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격차를 줄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약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협동조합이 지닌 가치 체계, 사랑과 호혜의

35) 김혜령은 마을공동체만들기에서 한국교회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면서, 교회는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의 주된 공간으로서 자리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혜령, “마을공동체운동과 마을교회,” 『기독교사회윤리』 27집 (2013년 12월), 224-231을 참고하십시오.

정신에 바탕을 두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우애의 경제학을 실현하려는 면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이는 초기 협동조합운동에 앞장섰던 선구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닌 상호의존성, 호혜와 협력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은 기독교적 사회정의와 평화의 정신과 상통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체의 이익 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타주의(altruism)에 기초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한다. 자신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위는 타인이나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이나 불편을 자신의 것처럼 경험하는 공감(empathy)이나 연민(compassion)의 감정을 갖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러한 정신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에 치중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다시 재투자되어 실직자와 빈곤 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보상 보다는 공동체성의 가치나, 나눔이 제공하는 가치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다.

2. 연대성과 호혜의 공유가치창출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

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특정 사회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과 경영방식을 의미한다.³⁶⁾

호혜성은 상호 관계를 가진 집단들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나눔, 관대함, 친절로 표현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성을 강화시킨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행 4:32)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눔과 호혜의 정신에 기초한 이상적인 공동체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같은 조직에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면서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비스 생산자, 소비자, 직원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관련된 자원봉사자나 후원자까지도 조합원으로 포용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들에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 거기에는 교사와 함께 자원봉사자, 더 나아가 후원자들도 조합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설립이나 조직 운영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시민정신의 함양이나 민주주의 실천의 모델이 된다. 오스트롬(E. Ostrom)은 공공 서비스 가운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서비스의 효과뿐 아니라 효율성도 증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³⁷⁾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의 사회 서비스 생산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36) 강민정, “비즈니스와 사회혁신,” 심상달 외, 『사회적경제 전망과 가능성』 (서울: 에디터월드, 2015), 49.

37) 윤길순·최우석,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경제평론』 47 (2015년), 283.

의 좋은 모델이 된다.

3.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다 가치 있는 윤리적 목적의식을 갖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여성,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협동을 통해 상호신뢰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특히 빈부격차나 정보격차가 심한 오늘날, 교육이나 보육, 의료 등 우리 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하는 길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또는 국가 기관 등에서 지원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윤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 인하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이상을 구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경제 구조 속에서 만성화되어 가고 있는 저성장과 실업문제 그리고 빈곤과 양극화,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신의 힘으로 조합원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과 연대하여 박애의 정신을 확장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교회는 이러한 열정과 헌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운동은 글로벌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실천적인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⁸⁾ 이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각자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모아 새로운 일자리, 특히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일자리를 창출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미래의 안전한 삶을 위한 사회적 그물망을 탄실하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V. 사회적 협동조합의 취약점과 대응방안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인력이나 자금난,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여러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 지속가능성 문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로 공공 부문의 위탁사업이나 사회서비스 공급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과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다. 임금도 영리 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정한 수준의 안정성은 제공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제한된 시장 탓에 다른 조직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사업의 지속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목적에 무게를 둔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비영리 단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영리기업의 방식을 일부 차용하게 되며, 반대로 경제적 목적에 무게를 둔다면 영리기업의 틀을

38) 최혁진, “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과 교회의 역할,” 『기독교사상』 655호 (2013.7), 71.

유지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된다.³⁹⁾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의 규모와 역량이 미흡하고 민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기반도 취약하였기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는데, 지원되는 정부 재원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중심이면서 단기적인 서비스 계약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즉각적인 고용확대와 유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자립의지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수요의 측면에서는 소득별, 서비스의 특성별, 인구구조의 변화 측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혁신적인 가치 복합체를 생산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통합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규모의 영세성과 자금 조달의 문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영리기업이나 협동조합과 비교할 때 규모가 영세하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려면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자금 조달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투자 유치, 정부사

39) 최조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욱모·심창학 편,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 (서울: 오름, 2012), 255.

업의 수탁, 후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상품 및 서비스의 질과 마케팅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대형 재단 또는 기업의 후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결속력을 높여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후원자들에게 높은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관련 전문재단이나 민간기금, 모태펀드를 활용하거나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 시장은 사회혁신기금, 사회혁신채권, 소셜벤처캐피탈, 벤처자선기금 등이 대표적이다.⁴⁰⁾ 이러한 사회투자자본은 상급자본처럼 높은 경제적 투자수익률을 기대하지 않는 대신에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큰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은 사회적 금융 역시 발달해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공익 금융기관인 자선은행(Charity Bank)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주택, 사회복지, 교육, 건강, 예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영국은 이 외에도 피닉스 펀드(Phoenix Fund), 퓨처빌더(Futurebuilders), 빅소사이어티 캐피탈(Big Society Capital) 등을 출범시켜 다양한 수요 및 공급주체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에게 보조금, 대출금, 기술적 지원 등 투자 패키지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지방 정부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발행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⁴¹⁾ 유럽에서는 사회적 투자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

40) 라준영, “사회적 기업 생태계와 사회적 가치 측정,” 심상달 외, 『사회적경제 전망과 가능성』(서울: 에딧더월드, 2015), 82.

41) 이성수,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경제,” 김성기 외, 192. 사회성과연계채권은 비영리단체

세인데, 유럽벤처박에협회 회원들은 1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⁴²⁾

그레이벨(I. Grabel)은 국제적인 민간 자본의 개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목적에 맞춰 자금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잘 고안된 자본 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고양시킴으로써 경제 위기가 초래하는 경제 사회적 황폐를 예방해야 한다. 둘째, 투자와 자금 조달 정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고양되어야 한다. 셋째, 자본 통제는 투기꾼이나 외부 인사들이 의사 결정이나 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가 정책의 자율성을 고양시켜야 한다.⁴³⁾

국내의 사회복지 관련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저소득 빈곤층의 마이크로크레딧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금융조달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기금의 재원 조성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의 주 대상이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인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형성이 요구된다.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은 투자자가 신속한 수익 회수를 기대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는 자본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데, 귀중한 자원이 된다.⁴⁴⁾

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 향상된 사회적 성과에 대하여 재무적 이윤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공공부분과의 계약이다.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은 이 계약에 입각하여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이 자금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이러한 사회적 성과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개선된 사회적 성과로 인하여 절감된 정부의 비용으로부터 투자 원금과 이윤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심상달 외, 『사회적경제 전망과 가능성』 (서울: 에드터월드, 2015), 36.

42) 김정원·이성조, 『사회적 프랜차이징 입문』, 83.

43) Ilene Grabel, "Global finance and development," J. B. Davis & W. Dolfsma, *The Elgar Companion to Social Economics* (Cheltenham : Edward Elgar, 2008), 512.

44) 인내 자본은 사회적 영향력을 위해 재무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주 때문에 최종 소비자의 이해를 희생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 자본

3.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자생력 확보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내적 역량의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 확보,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정부의 정책에 의해 영향 받기가 쉬운 구조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들 간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지역자원, 지역 네트워크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고용 창출의 핵심기반이기에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결속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와 역량을 조사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시장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풀뿌리 단위에서 시작되었지만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일궈낼 수 있도록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⁴⁵⁾ 이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끌 지도자 양성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효율적인 자원연계 방법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다 위험에 훨씬 관대하며, 자본 회수를 위한 기간을 길게 잡고, 기업이 성장하도록 집중적인 경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김정원·이성조, 『사회적 프랜차이즈 입문』, 65.

- 45)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닌 규모의 영세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적용해 각 지역의 조직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하면서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상호작용으로 규모화를 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프랜차이즈는 최소한의 위험,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협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김정원·이성조, 『사회적 프랜차이즈 입문』, (홍천: 아르케, 2013)을 참고하시오.

VI. 나가는 말

위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고 국외와 국내의 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한 교회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취약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협동과 공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사회의 취약층들을 품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혹한 경쟁체제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았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해 나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과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을 지닌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개인과 공동(共同)의 이익을 지역사회의 공동(公同)의 이익과 결부시켜 내는 시민사회의 창조력과 상상력, 그리고 열정과 개척정신이다.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중심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제로섬(zero sum)의 법칙이 지배하지만 호혜성에 입각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지티브섬(positive sum)이 지배한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상적인 기독교적 정신을 새롭게 구현하는 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무한대로 확장되어 가는 경제 구조 속에서 만성화되어 가고 있는 저성장과 실업문제 그리고 빈곤과 양극화,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합원이 되기 어려운 취약층과 연대하며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각자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끌어 모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미래의 안전한 삶을 위한 보살핌의 그물망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참고문헌

- 강욱모 · 심창학 편,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 서울: 오름, 2012.
- 김경희,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제 3권 2호 (2013. 8).
- 김기섭, 『깨어나라 협동조합』. 파주: 들녘, 2013.
- 김기태 외,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서울: 알마, 2014.
- 김성기 외,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홍천: 아르케, 2014.
- 김영진,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파주: 한울, 2005.
- 김의영 · 미우라 히로키 외, 『한·중·일 사회적경제 Mapping』. 과천: 진인진, 2015.
- 김의영 외,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서울: 푸른길, 2016.
- 김인겸 외, “사회적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대수익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제12호 (2015년 12월).
- 김정원 · 이성조, 『사회적 프랜차이즈 입문』. 홍천: 아르케, 2013.
- 김재훈,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파주: 한울, 2013.
- 김형미, “협동조합운동에 스며든 기독교 사상,”
- 김혜령, “마을공동체운동과 마을교회,” 『기독교사회윤리』 27집 (2013년 12월).
- 박찬웅, 『시장과 사회적 자본』. 서울: 그린, 2006.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협동조합 이해하기』,
- 신창환, 『사회적 경제의 실천 조건과 정책을 통해 본 사회적 협동조합의 과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8권 2호 (2015년 10월).
- 심상달 외, 『사회적경제 전망과 가능성』. 서울: 에딧더월드, 2015.
- 양준호,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기업』. 서울: 두남, 2011.
- 유석춘 외,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2003.
- 윤길순 · 최우석,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경제평론』 47 (2015년).
-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기업』.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2008.

- 이상봉,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론적·실천적 의미: 공생의 지역사회 만들기의 관점에서』, 『로컬리티 인문학』 제16호 (2016년 10월).
- 이운재·강달원·이화진, 『나눔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 기업』. 서울: 탐복스, 2012.
- 이종원, “기독교 협동조합의 가능성,” 『신학과 사회』 30집2호 (2016년 5월).
- 이철선, “고용복지 대안수단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능성진단,” 『보건복지포럼』 제 197호 (2013. 3)
- 임혁백 외,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기업』. 서울: 송정문화사, 2009.
- 조미형,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 탐색,” 『농촌지도와 개발』 21권3호 (2014년).
- 조용훈,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33집 (2015년 12월).
- 조우석, “또 다른 세상을 가능케 하는 힘: 우리가 협동조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우리교육』 제 251호 (2013. 3).
- 주성수,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0.
- 최혁진,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장과 교회의 역할,” 『기독교사상』 655호 (2013.7).
- McLeod, Andrew, 홍병룡 역,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서울: 아버서원, 2013.
- Allen J. Scott, *Social Economy of the Metropol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Gillian Brock, *Glob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J. B. Davis & W. Dolfsma, *The Elgar Companion to Social Economics*. Cheltenham : Edward Elgar, 2008.
-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홍기빈,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09.
-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ksea/company.do>

논문투고일: 2017년 02월 27일

심사게시일: 2017년 0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7년 04월 07일

 • 국 문 초 록 •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반하고 있는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추구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에 연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장점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호혜와 연대에 기초한 이상적인 공동체 건설의 기초를 놓고자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존과 상생의 생명가치를 보존하고자 설립된 경제 조직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타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독교 정신과 깊이 연관성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는 평등과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의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고자 했던 이상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뢰와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약자들에게 힘을 주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돌봄의 경제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성화되어 가고 있는 저성장과 실업문제 그리고 빈곤과 양극화,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며 바깥의 정신을 확장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교회는 열정과 헌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운동은 글로벌 시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대한 교회의 실천적인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 이타주의, 공존, 호혜, 연대.
